



대학 총장 선출방법에 관한 제안

김 성 수 | 한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상임회장

I. 문제의 제기 - 대학 총장 선출의 문제

지난 2004년 6월 4일(금)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주최 “대학 총장,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이 열려, 많은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까지도 관심과 흥미의 깊이를 더 갖게 되었다. 이날 대학별 총장 선출 방법 주제발표에 나선 분들의 면면을 보면 먼저 “고려대학교 총장 선출방법의 사례”를 고려대 철학과 하중호 교수, “개방사회의 총장 선출 제도” 서강대학교 정요일 교수협의회장, “21세기 대학과 대학 총장(총장 선출 방법)”을 연세대학교 전 교수평의회 의장 박홍이 교수, “대학의 발전과 총장 선출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혜숙 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척된 총장 선출방법이라 이날의 심포지엄이 많은 대학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 러플린 교수

가 KAIST의 총장선거에 입후보하여 총장이 되었으며, ‘총장 직선제론으로 21세기 대학 혁신 못한다’는 일간지 사설의 주장이 팽배한 가운데 총장 선출방안 심포지엄은 큰 의미를 실감케 하였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총장 선출 문제는 재단과 교수협의회간의 대학민주화의 기본처럼 되어 왔다. 총장 선출의 직·간선 통합모형에 대한 문제, 직원참여 비율과 방식,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 총장 후보 외부 영입 등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 왔던 민감한 사안들이었다.

이러한 대학가의 총장선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곳에서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의 회장으로 이 글을 쓰게 되어 사립대학교 여러 교수들에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제목을 “대학 총장 선출방법에 관한 제안”으로 설정하였기에 개인적인 생각 몇 가지를 대학 총장 선출 방법으로 제안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 글을 쓰는 데 자료는 이화여대 교수협의회에서 시행했던 심포지엄 자료, 경희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연구하였던 총장후보 선출방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총장 선출방법, 연세대학교

“

지난 몇 년 동안 총장 선출 문제는
재단과 교수협의회간의 대학민주화의 기본처럼 되어왔다.
총장 선출의 직·간선 통합모형에 대한 문제, 직원참여 비율과 방식,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 총장 후보 외부영입 등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 왔던
민감한 사안들이었다.

”

총장 선출방법, 서강대학교 교수협의회 총장 선출 시안, 교수신문 자료, 대학신문 자료, 일간지들의 '총장 직선제론 대학혁신 못 한다' 등의 글과 특히 중앙일보 emerge의 자료, '교육부의 착각', '대학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등의 미디어다음의 글들을 이용하였다.

우리의 인구 대비 대학생 숫자(360만 명)나 대학 진학률(80%)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학교육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로는 60개국 중 59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런 신세를 벗어나려면 이제는 과감한 국제화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기 대학 출신만 뽑는 순혈주의 타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를 대상으로 탁월한 교수들을 불러들일 세계 차원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글들이 신문지상에 제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립재단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선출하여 사학비리와 부정을 마음대로 전횡하는가 하면, 재단의 꼭두각시 노름에 젖어 있는 총장들이 교수들을 부당하게 해직시키고 있는 등 교권 침해와 교수채용비리, 교수협의회 구성 저지 및 구성원 탄압 등을 일삼는 총장으로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진입할 수 없기

에 능력과 경륜, 세계화 마인드가 있는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주장도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다.

II . 우리나라 대학의 총장 선출 현황

지난해부터 대학가는 총장 선거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KAIST,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경희대, 전남대, 강원대, 부경대 등 특히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훌륭한 총장을 재직교수들이, 또는 교직원, 동문과 학생대표 등 공대위가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슈(issue)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총장 직선제가 과열, 혼탁양상, 파벌조장, 보직남발 등 부작용이 많다는 말과 상갓집까지 찾아가 한 표 부탁해서 뽑힌다는 직선제 총장이 어떻게 교수들 간 경쟁을 채찍질 할 수 있겠는가 의 물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교수들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실시한 총장 공모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응모, 외국인총장 시대 개막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 로버트 러플

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신성철, 박성주 교수 등이 경합을 하여 양자물리학의 세계적 대가인 리플린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였다. 물론 실험단계이긴 하지만 한국적 정서와 교육, 문화에 어느 정도 코드가 맞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의 각출이 중요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의문도 지적하는 교수가 많다.

다음 고려대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총장 선출 현황을 살펴보면, 직·간선 통합모형인데 이 통합모형에 직접 관여했던 철학과의 하중호 교수는 직·간선의 통합모형의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 실시한 결과 매우 훌륭한 지금의 모델이 나왔다고 하였다. 즉 전체 교수의 직접 선거를 통해 총장선거 입후보자 중 부적합자를 걸러낸 다음, 교수, 법인, 교우회, 직원, 학생이 참여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 간접선거로 2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이러한 고려대학교 총장 선출방법은 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간선제의 통합 형태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려대학교의 총장자격은 학문적 소양과 덕망을 갖추고, 고려대학교 건학이념, 자유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며, 탁월한 국제적 안목과 학교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소유한 인물로 규정하였다.

연세대학교의 총장 선출방식을 전 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인 물리학과 박홍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세대학교는 총장 선출에서의 직원 참여와 비율 그리고 방식에 관해서, 직원참여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었던 바 있어 우리 사립대학교의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처음에 연세대는 직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개정했

다가 선거 막판에 직원들에게 10%의 투표권을 준 것이 문제가 돼 평의회 의장단 전원이 물러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제15대 총장 선임 방법은 교수평의회에 후보등록 교수와 직원(90%+10%) 참여로 직접 투표 최고득점자 2인을 이사회에 추천 이사회에서 현 정창영 총장 임명 등 순으로 하였다.

서강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총장 선출 심포지엄에서 새 총장 선출제도 시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예수회의 신부들로만 총장 후보가 독점돼 왔던 총장후보 규정을 학내 교수는 물론 사회 저명인사까지 확대, 개편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교수협의회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강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정요일(국문학과) 교수는 “재단, 교수, 동문,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30인 내외의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입후보자들을 1차로 선별한 후, 그 중 교수의 위원 수는 15인 내외로 한다. ‘총추위’ 위원 교수 15인의 구성 비율은 재적 교수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단과대별로 위원을 선출하되, 그 위원의 자격을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학교 전체의 교수평의회(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전체 교수회의)는 ‘총추위’에서 추천된 7인 이내의 ‘총장 예비 후보’에 대한 1인 1표의 투표를 행하여 최다 득표자 2인의 ‘총장 후보’를 선출하고, 그 ‘총장 후보’를 득표 순위로 명기하여 학교 재단에 추천한다. 학교재단은 ‘교수평의회’에서 추천된 2인의 ‘총장 후보’에 대해 심의하여 총장을 임명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제12대 총장 후보 선출 방법은 교수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기술한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방법은 총41명 규모로 하고, 대학(원)별 추천위원 수는 각 대학(원)에 1명을 기본 배정한 후, 전임 교원 20명당 1명 추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추천위원의 자격은 임용 후 5년이 경과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총장후보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선출과정은 입후보나 토론 없이 진행한다. 추천위원은 각자의 소신에 따라 1인 1표제로 투표하여, 1차 투표에서 다득표자 6명까지의 예비후보자를 선출한다. 이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 3명을 선출하고, 총장은 이를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1차 또는 2차 투표에서 소정의 다수 투표자와 동수의 투표를 한 자는 수에 불구하고 모두 후보자가 된다. 1차 투표에서 3명 이내의 예비후보자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교무처장은 1차 투표 후의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추천위원단에 제공한다. 그리고 총장후보의 자격은 첫째, 이화교육이념에 투철해야 한다. 둘째, 총장 임기 중 정년에 달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본교 재직 정교수(정년 보장 교원)이어야 한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5월 20일 총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직원 투표 참여 비율조정을 놓고 교수평의회와 공대위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 투표가 6월 3일에 실시됐다. 교수평의회와 공대위 간의 양측은 정석종 총장이 제시한 1차 투표에서 60명, 2차 40명, 3차 20명 수준의 직원 참여를 보장하는 안을 받아들여 6월 3일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으나, 교수와 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직선방식의 총장

선거로 바뀌어 치렀다. 이번 17대 총장선거에는 개교이래 처음으로 교직원이 참여한 직선방식으로 교수 862명, 직원 397명 등 총 1,2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부경대학교는 대학본부의 중재로 교수와 직원 양측은 이번 선거에서 1차 10%, 2차 7%, 3차 3%씩의 직원 참여를 보장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당초 직원공동대책위원회가 요구했던 대회 19%씩의 직원 참여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서동철 직원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선거에 직원 참여가 처음이다 보니 교수들의 정서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으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총장 공석 등 최악의 사태를 막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역시 5월 18일 교수대비 직원 참여 비율을 1차 투표에 10%, 2차 5% 3차 4명으로 최종 조율, 6월 달에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제8대 선거에는 5명의 교수가 총장후보로 입후보했다.

지난 5월 24일 제주교대는 총장 선거 과문 확산 등 투표의 불투명문제가 제기되어 큰 진통을 겪었다. 이 밖에도 많은 대학에서 총장 선출문제로 고통과 고민에 빠져 있다. 일부 일간지에서는 사실을 통해 총장 직선제로는 대학 혁신 못한다는 글까지 실고 있으며, 일부 대학교수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총장 선출 단일안을 만들어 대학에 제공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내고 있다. 이러한 교수들은 대학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은 지난 4반세기동안 민주적인 총장 선출 한번 정당하게 해본 경험조차 없이, 실험조차 해보지 않고 왈가왈부 하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하다.

Ⅲ. 총장 선출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점

대학 총장 선출방식은 대학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김혜숙 교수는 “대학의 발전과 총장 선출”이라는 지난 번 심포지엄의 발제에서 대학 총장 선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대학 총장 선출방식은 대학 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라는 제도의 생명력의 문제이다. 대학, 나아가 교육기관 일반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정 집단의 사적 소유물로 점유될 수 없다. 국가가 여러 교육법제 및 세제 등을 통해 교육기관이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할 권한을 보장하여 주고 세제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교육이 지니는 공공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사적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데서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 부정이 발생한다. 이번에 사교련에서 사립대학의 비민주적 운영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재단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몰상식하고, 무능한 대학 총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수채용비리, 부당한 교수 채용탈락, 교권침해, 교수해직, 교수들에게 부당한 발전기금 강요와 강제적 모금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있다. 사학재단의 기금운영비리, 등록금 등 교비용, 재단의 일방적 총장 및 보직자 임명, 명예박사 및 일부교수 채용에 기부금 및 발전기금 명목의 매관매직 행위, 학생 입시부정과 비리 등은 대학 총장과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학 총장의 비리와 부정, 무능은 교수집단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자기부정과 자기비하를 초래시키고, 학문적 의욕을 상실케 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자유로운 정신과 자존, 명예를 생명으로 삼는 교수집단의 특성상 대학 총장의 비합리적 비리와 부정은 대학을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총장 선출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들은 대학 총장의 조건과 대학 총장의 자격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총장 선출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 즉 교수, 학생, 학부모, 동창, 직원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총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며, 자질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직선이든 간선이든 민주적 방식에 의한 투표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

넷째, 학내 교수 중에서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외국의 학자나 또는 국내외 훌륭한 CEO출신의 총장 후보는 가능한가?

다섯째, 사립재단에서 총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총장의 전횡을 견제할 방법은 무엇인가?

여섯째, 총장을 어떻게 선출해야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왜 우리나라 대학의 총장 선출은 공정성과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잡음이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학습적 공동체가 진리와 정의가 부족한 지성적 힘이 모자라는 것일까?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대학 총장 선출은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새로운 좌표를 요구하고 있다. 학문적 소양과 덕망을 갖추고, 건학이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며, 탁월한 국제적 안목과 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다.

”

Ⅳ. 바람직한 총장 후보 선출 방법의 해답은

우리나라의 대학 총장 선출은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새로운 좌표를 요구하고 있다. 학문적 소양과 덕망을 갖추고, 건학이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며, 탁월한 국제적 안목과 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다.

첫째, 학문적 소양은 학문적 업적과 평판, 학문적 경력, 둘째로 덕망은 겸손과 타협, 서민적 자상함을 갖춘 인간성, 친밀감, 인화, 포용력 등의 청렴성, 용기, 판단력, 형평감각, 공정성, 셋째는 국제적 안목을 가진, 즉 국제적 시대조류에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해외 학계와 교류, 해외학술회의 참여 등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넷째로는 행정능력, 관리능력, 추진력, 정치력 등 경영능력이 출중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교우, 지명도, 취미, 기호 등 개인 신상도 신선했어야 한다.

21세기 대학 총장의 자리는 학식과 덕망이라는 고전적인 덕목보다는 경영능력이라는 CEO능력이 대학 총장 자질로 공인되는 추세다. 교수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할 때 바로 이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무한경쟁의 교육시장에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대학과 군소 사립대학에서는 경영능력 있는 총장의 선출은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이 시대의 대학 총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학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학식과 덕망 이외에 경영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서구의 대학들은 이미 CEO형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대세이고, 동양권의 대학들도 그런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과거의 성균관 대재학처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선비여야 한다는 의식과 21세기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바라는 경영능력을 가진 총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필요 사이의 갈등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제 바람직한 총장 선출 방법을 4가지로 집약하여 해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제1안은 재단임명 방식이다. 이 방법은 현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한다.

둘째, 제2안은 재단 추천 후 교수총회에서 신임 투표로 표결하는 방식이다. 재직 교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교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신임을 못 얻을 경우, 재단은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여 신임

을 얻는 후보자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실시한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찬성의 경우 0표, 반대의 경우 X로 기록하며, 0, X 표기 이외의 경우 무효표로 처리한다. 이 방법은 교수회나 교수협의회에서 총장 선출관리를 모두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 방법이다. 좋은 사례가 2003년도 경희대학교 총장 선출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입하여 채택하였는데 구성원 일부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도 있었지만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교직원 참여하지 못한 결점도 있다.

셋째, 제3안은 교수총회 직접선출 방법이다. 직접선출 방법은 유형에 따라 다음 3가지 방법(교황선출 방식, 총장 예비후보 선정위원회 방식, 일정수 교수추천 입후보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교황선출방식은 예비후보자 수 5인까지 압축할 수 있으며, 최종 2인까지 후보자를 선출한다. 총장에비후보 선정위원회 방식은 단과대학별로 2인의 대표를 위원으로 선출하되 3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의 대표를 추가로 배정하여, 위원들은 연기명투표로 다수득표순으로 5인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고 거기서 다시 2인을 총장후보로 선출하여 교수총회의 본 선거에 상정한다. 일정수의 교수추천에 의한 입후보 등록 방식은 총장 예비후보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교수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동일 단과대에서 15인 이상의 추천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예비후보가 없는 경우는 총장 선임문제는 재단이 주관한다.

넷째, 제4안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이다. 이 방법은 총장후보 선거인단을 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단과대학별로

제직교수 비율에 의하여 교수협의회 분회에서 선출한다.

이와 같은 대학 총장 선출제도의 해답을 4가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총장 선출방식은 세계에서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학 총장 선출제도를 어느 방법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구성원의 만족도와 대학발전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 대학의 문화와 학풍 역사적인 전통, 설립자의 교육이념 등을 홍보하여 대학 총장 선출제도가 대학 혁신과 대학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대학가 총장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구어지는 이때에 대학 총장 선출 방법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여 대학마다 전통 있는 새로운 총장 선출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면서 대학교육이 경제에 기여하는 수준이 세계에서 1위로 평가받기를 기대해 본다. 대학
교육

김성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경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하버드대 수학, (사)한국인사관리학회 회장, (사)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 21세기 국가발전연구센터 대표 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희대 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교수(협)회연합회 상임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21세기형 글로벌 경영전략』, 『신인사관리』, 『신노사관계론』, “개성상인정신 발달사 연구” 외 다수가 있다.